

# 기후 공시의 시작, 대응을 위한 우리의 전략과 역할은?

일시: 2024년 7월 31일 14:30 - 17:30

주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한국에너지공단

## 발표 1

산업계 적응협의체 추진경과  
조한나 KEI KACCC 연구위원

## 발표 2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 발표 3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  
주우영 국립생태원 국제협력팀장

## 토론

조한나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연구위원  
박상민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팀장  
공병수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팀 차장  
김범준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 과장  
이강 EY한영 ESG/CCaSS팀장

본 리포트에 담긴 정보에는 해당 ESG 이벤트의 콘텐츠가 포함되어있으며, 이 콘텐츠의 견해 및 보증은 해당 행사주최측의 책임으로 당사는 게재콘텐츠의 완전성 및 정확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 저작물의 텍스트, 이미지 및 레이아웃은 임팩트온이 저작권을 가지며, 임팩트온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전체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본 저작물의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master@impacton.net](mailto:master@impacton.net)으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 Executive Summary

본 행사는 산업계 적응협의체의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의무화되고 있는 기후 공시로부터 산업계의 대응 전략과 기회 도출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과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과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을 활발히 논의함.

## key takeaway 1

### 산업계 적응협의체 추진경과

-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산업계의 컨설팅 비용 등 공시를 위한 추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취약성평가 작업을 실시했고,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안에 ‘기후위기 적응 종합 플랫폼 구축’이 의무 조항으로 발의된 상황임. 플랫폼 구축 시 평가 결과를 시각적으로 공간화한 지도를 공개할 것임.
- 정부는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 “산업계 적응협의체 및 중점산업 역량강화 교육”, “기후위기 취약지역 위험도 시범평가”, “물리적 기후위험 분석 정보 제공”을 계획 중임.
-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협의체는 19개의 업종별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 산업별·이슈별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전략을 제공함.

## key takeaway 2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2024년 4월 공개 초안을 발표했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160여 개의 의견을 받은 상황이고, GRI 등 다른 국제 기구와 해외 투자자들의 의견도 받는 중임.
- KSSB의 목적은 투자자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EU나 미국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부합을 목표로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지표 및 목표에서 ‘산업 전반 지표’는 기업 공통으로 공시해야 함. 산업 전반 지표 내의 경영진의 보상의 경우, 연계된 항목만 보더라도 기업의 위험관리, 거버넌스, 전략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Executive Summary

본 행사는 산업계 적응협의체의 추진경과를 소개하고, 의무화되고 있는 기후 공시로부터 산업계의 대응 전략과 기회 도출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임.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과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과 이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을 활발히 논의함.

### key takeaway 3

####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

- 전 세계 GDP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10대 위험에 기후변화와 생물위기를 최대 위협으로 제시함.
- 자연자본 정보 평가 접근법인 LEAP은 'Locate', 'Evaluate', 'Assess', 'Prepare'의 4단계 절차(16가지 항목)를 통해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측정·평가하는 방법임.

## 조한나 KEI KACCC 연구위원

### 산업계 적응협의체 추진경과

#### (산업계 적응 경쟁력 포럼 개요)

2022년부터 산업계 적응 심포지엄으로 진행했고, 작년부터 경쟁력 포럼으로 진행하고 있음. 상반기, 하반기로 연 2회 진행할 것임. 산업계는 컨설팅 비용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신뢰성 검증을 받은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냄.

이에 한국환경연구원의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구체적인 취약성 평가 작업을 진행했고, 결과는 곧 발표할 예정임. 22대 국회가 발의되면서, 탄축법 개정안에 ‘기후위기 적응 종합 플랫폼 구축’이 의무 조항으로 발의된 상태임.

플랫폼이 구축되면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가 진행한 취약성 평가를 시각적으로 공간화한 기후 유형 지도를 오픈할 것임.

## 조한나 KEI KACCC 연구위원

### 산업계 적응협의체 추진경과

#### (산업계 적응 지원을 위한 정부의 계획)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 대책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음.  
산업계 적응을 위한 정부의 계획은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① 금융권

“금융회사 기후리스크 대응 강화” 계획을 수립 중임. 「금융권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 마련으로  
금융회사의 기후리스크 관리체계 정착 유도 목적임. 국내 은행·보험사 등 총 10개 사가 참여하는 「  
기후경제 시나리오 공동작업반」 구성 및 기후경제 시나리오(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임.

##### ② ESG 공시 의무

‘25년부터 기후 정보를 포함한 상장사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국내 ESG  
공시기준을 제정할 계획임. 2025년보다는 미뤄질 것으로 예상함.

##### ③ 역량 확보

환경부와 산업부가 공동으로 “산업계 적응협의체 및 중점산업 역량강화 교육” 지원을 하고 있음.  
주요 산업별·이슈별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전략을 제공할 예정임.

## 조한나 KEI KACCC 연구위원

### 산업계 적응협의체 추진경과

#### ④ 산단점검

국가 노후산단 중 시범 대상지를 선정해 주요 기후위험요인을 조사·분석 등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적응대책을 제시함. 기후위기 취약지역의 위험도 시범평가를 추진하고 있음.

#### ⑤ 정보 제공

기후공시 및 ESG경영 대응을 위한 물리적 기후위험 분석정보를 제공해 기업의 적응역량 제고 및 의사결정 지원을 계획 중임.

###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협의체 구성 및 운영 방향)

#### ①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협의체 구성

환경부·산업부가 같이 운영하며, 업종별 대표협회를 협력기관으로 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업종별 적응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예정임. 협의체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산업을 ‘중점산업’으로 선정해, 문제해결형 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워크숍인 ‘중점산업 적응워크숍’을 진행할 예정임. 현재는 19개의 업종별 적응 협의체를 운영 중임.

#### ② 산업계 기후위기 적응협의체 성과

주요 산업별·이슈별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전략을 제공함. 산업단지 기후위험도 시범평가를 추진함. 시범평가는 ▲산업단지 현황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중요·노후 산업단지 기후위험 시범 평가, ▲기후위험도 결과를 고려한 대책 방향 제시 순으로 진행됨.

##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도입 배경)

기후변화 속 다양한 위험과 기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재무 정보가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하도록 하는 기준이 아님.

#### (국제 동향)

EU, 미국 등 주요국들은 경기 침체를 타계할 목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정책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으로 ESG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기업은 규제의 준수 여부,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함.

ESG 투자규모는 '30년까지 13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ESG 평가 기준에 따라 석탄, 핵무기 생산 기업,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기업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힘. BIS는 효과적인 은행 감독을 위한 핵심 원칙에 '기후' 관련 금융리스크를 새로운 리스크로 명시적으로 추가함.

유럽과 미국의 경우 공시 제도까지 마무리되었고, EU의 경우 ESRS 기준이 시행되고 있어, 내년에는 공시된 자료를 볼 수 있게 됨. 일본, 호주, 캐나다의 경우 ISSB 기준을 기반으로 공시기준을 제정 중에 있음. 일본은 '25년 3월에 기준 발표 예정이며, 호주는 '24년 8월로 발표를 연기한 상황임.

#### (KSSB 기준 진행경과)

올해 4월 공개 초안을 발표했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음. 지금까지 160여 개 의견을 받은 상황임. GRI와 다른 국제기구, 해외 투자자들도 의견을 주고 있음.

##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KSSB 기준 제정 원칙)

##### ① 정보 유용성

ESRS의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지만, KSSB의 목적은 투자자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함. 투자자들에게 비교 가능하고 신뢰성 있는 양질의 지속 가능성 관련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임.

##### ② 국제 정합성

ISSB 기준을 시작점으로 EU나 미국 등의 공시 기준과 상호 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해외 주요국의 규제 대상이 되는 국내 기업들의 이중 공시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함.

##### ③ 기업 수용가능성

국내 기업의 공시 역량 및 준비 상황을 고려해 공시 기준 적용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함. 국제 정합성과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8월 31일까지 진행하는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함.



##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KSSB 공시기준 구조)

의무 공시 기준인 제1호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사항', 제2호 '기후 관련 공시사항'은 IFRS S1과 S2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 이 중 제101호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공시 사항'은 기업이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부분으로 선택 공시를 통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함.

#### (KSSB 공시기준 개발 경과)

투자자는 위험과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이 지속 가능한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업에 자원을 제공할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함. 공시 대상은 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하며, 재무제표와 동시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법정공시로 할지, 거래소 공시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로드맵에서 발표 예정임. 초반에는 거래소 공시가 우세했지만, 지금은 법정 공시를 통해 법으로 기업이 보호받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임. 공시하게 될 정보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친 기업 전망에 영향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임.

##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실장

###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

#### (KSSB 공시기준 주요 내용)

기업의 거버넌스, 위험관리, 전략, 목표 및 지표 표시로 나누어 공시해야 함. 목표를 공시했다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목표는 곧 위험 관리이므로, 위험으로 식별한 이유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 수행에 대한 부분도 위험관리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전략을 세우는 거버넌스 활동까지 보여줘야 기업의 미래를 알 수 있음. 시나리오 분석 방법은 기업의 여건에 맞춰서 하면 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업의 회복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임. 지표 및 목표의 '산업 전반 지표'는 기업 공통으로 공시해야 함.

산업 전반 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물리적 위험에 취약한 자산, 경영진 보상, 내부 탄소 가격 등임. 이 항목이 기업 공통 공시인 이유는 경영진의 보상의 경우 연계된 항목만 봐도 기업의 위험관리, 거버넌스, 전략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 주우영 국립생태원 국제협력팀장

###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

####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도입 배경)

전 세계 GDP 절반 이상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계경제포럼(WEF) 세계 10대 위협에 기후변화와 생물위기를 최대 위협으로 제시함. 특히, 척추 동물이 68% 감소하고, 100만 종 정도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과 자연자본의 정의)

같은 생물 종의 유전자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생물 종 간의 다양성이 높고, 생태계가 다양할 때 생물다양성이 높다고 이야기함. 자연 자본은 육상, 수계, 해양, 대기 영역을 포함하고 있음. 이 영역에 포함된 천연자원, 서식지, 토양 등의 자산도 포함하고 있음.

#### (TNFD 공시 도입 동향)

2021년에 출범하고, 2023년에 권고안이 나왔음. 2026년도에 ISSB Nature을 통해서 기준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임. 향후 2~3년 내에는 국제적인 기준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됨.

2022, 생물다양성협약(CBD)에서 글로벌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하면서 전 지구 생물 다양성 전략 체계와 23개 전략 목표를 승인함. GBF 목표 15번에 따르면 TNFD 공시를 하는 기업의 수를 국가가 제출하도록 하고, 전략과 목표를 2030년까지 제시하도록 함. GBF의 많은 목표는 TNFD에 있는 지표와 상당히 유사함.

## 주우영 국립생태원 국제협력팀장

###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

#### (TNFD 공시 주요 내용)

TNFD는 TCFD의 4가지 분야 11개의 사항에 기후와 자연 자본에 대한 부분을 추가함.  
TNFD 공시의 핵심은 장소임. 국가마다 다른 생태계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가 중요하며 이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다 보니 토착민과 같은 지역적인 이해관계자도 지배 구조에 포함되어 있음.

#### (자연자본 정보 공시 관련 기준 및 지침)

TNFD 권장 사항(2023.9.)이 가장 최신이고, SBTN(Science Based Targets Network, 2023.6.)과 GRI 101: 생물다양성 2024(2024.1.)이 있음. 이는 권고안이나 자발적 이니셔티브인데,  
CSRD 지침에는 생물 다양성 에 대한 부분이 법적 의무로 되어 있음.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의무화될 것으로 예상함.

## 주우영 국립생태원 국제협력팀장

자연 자본 관련 공시 프레임워크 권고 최종 초안

### (자연자본 정보 평가 접근법:LEAP)

LEAP(Location, Evaluate, Assess, Prepare) 접근법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의존성, 영향, 위험과 기회를 측정·평가하기 위해 LEAP에서 제시하는 4단계 절차(16가지 항목)를 통해 평가하는 방법임.

Locate(위치)는 기업과 지역 생태계에 대한 관계 설정하는 단계임. Evaluate(평가)는 자연의 의존성과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임. Assess(측정)는 자연자본이 기업에 미치는 위험과 기회를 측정하는 단계임. Prepare(준비)는 목표와 전략 등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는 단계임.

### (지역별 생태계 특성 반영 도구: iBAT)

iBAT(Integrated Biodiversity Assessment Tool)는 통합 생물 다양성 평가도구임. 해당 도구의 중요한 지표로 STAR(Species Threat Abatement and Restoration)이 있음.

STAR은 멸종 위기종(CR) 400점, 위급종(E) 300점, 취약종(V) 200점, 위협근접종(NT) 100점으로 점수를 부여해, 위협 종 수 점수와 서식지 비율 점수를 곱해 STAR 값을 산출함.

현재 문제점으로 도구의 해상도가 2,500km<sup>2</sup>이므로, 우리나라는 약 40개의 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낮은 해상도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한계점이 있음.

## 토론

### 박상민 IBK기업은행 ESG경영부 팀장

다량의 데이터를 TNFD 공시에 맞게끔 가공해야 하는 입장으로서 아직 불명확한 것이 매우 많음. 녹색 채권 조달을 위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 금융권 내의 공시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은행의 배출량 측정 관리 고도화를 위해서 IBK 탄소 중립 허브라는 시스템을 올해 마련해, 80~90%의 데이터는 자동화했음. 또한 일반보다 클라우드가 수정이 용이하고, 탄소 배출량이 적게 나옴.

현재 기후 리스크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 작업 중이고, 시장 리스크와 신용 리스크에 기후 리스크까지 포함한 통합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현 중임.

### 공병수 포스코홀딩스 기업윤리팀 차장

투자자들은 탄소 로드맵과 감축률이 SBTI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요구함. 공시의 전략과 핵심은 이해관계자가 요구하는 항목을 정확히 공시하는 것임. ESG 업무 중에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이사회와 경영층이 기업의 의사 결정을 움직이기 때문임.

이에 포스코그룹은 ESG 협의체를 운영해, ESG와 관련된 중요한 의제를 논의하고 이를 경영 전략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 리스크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응하는지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토론

### 김범준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실 과장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근거로 한 법정 분쟁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대한 기업의 불안감도 큰 상황임. 면책 조항이 있더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공시 의무화 도입 시기가 2028년 이후가 되어야 한다는 기업은 절반 이상 있었고, 혼란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많은 기업이 준비가 된 시점에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중속 회사까지 연결 기준으로 공시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기업이 반대하고 있고,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중소·중견 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교육이 필요함.

### 이 강 EY한영 ESG/CCaSS팀장

2023년 7월에 ESRS에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이슈가 주요 이슈 중 하나로 포함됨. 2023년 9월에 TNFD가 발표되면서 기업의 관심이 굉장히 커짐. 2024년 1월에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할 때 GRI를 많이 채택했는데, GRI에도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공시 기준이 만들어짐.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TNFD를 2025년까지 공시하겠다는 기업이 416개 기업임.

자연자본은 환경 경영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공시하고 관리 하고 있던 영역임. 생물 다양성은 관리하고 있지 않은 영역이지만, 재정립하고 검토하여 대응하면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LEAP 방법론을 어느 영역까지 적용할지 결정하는 부분이 먼저 필요함.

### 조사 및 작성

임팩트온 김경훈 RA

[rlarudgns22@gmail.com](mailto:rlarudgns22@gmail.com)

### 편집 디자인

임팩트온 이승진 디자이너

[im.code.0730@gmail.com](mailto:im.code.0730@gmail.com)